

# 외출자제·소비위축에 가맹점 매출 '뚝'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실태조사  
코로나19에 매출 50% 이상 감소  
광주 14.1%·전남 16.7% 달해  
가맹금·정부 부가세 감면 등 필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광주·전남 가맹점 점주 3명 중 1명 꼴로 근무인원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이달 10~14일 광주 149개·전남 168개 등 전국 16개 시도 가맹점 3464개를 대상으로 펼친 '코로나19 영향 가맹점 실태조사'에서 드러났다.

응답자의 97.3%에 달하는 3371개 가맹점주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매출이 하락했다"고 답했다.

지역 가맹점주 상황을 살펴보면 하락 폭은 전체 매출의 11~20% 줄었다는 응답이 5분의 1꼴(광주 21.5%·전남 22.0%)로 많았다.

매출이 절반 이상 감소했다는 가맹점주도 광주 14.1%·전남 16.7%에 달했다.

하지만 광주 45%·전남 53% 등 지역 가맹점주의 절반 가량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대응을 하는 가맹점주도 영업시간을 줄이거나 인원을 감축하며 버티고 있었다.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물어보니 광주는 '영업시간 등 축소'(42.5%), 전남은 '인원 감축'이 36%가 가장 많았다.

대출 등으로 운영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가맹점주도 광주 19.2%·전남 23.0%에 달했다. 휴·폐업을 단행하거나 고려하는 점주도 광주 5%·전남 3.3%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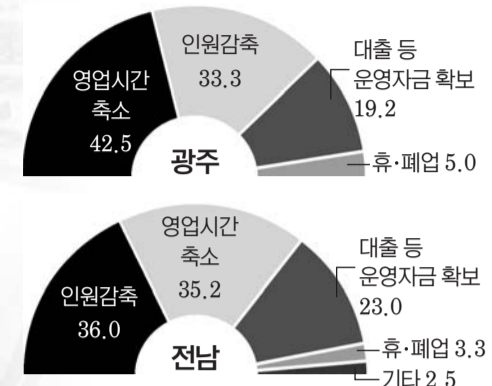
가맹점주의 '제 살 깎아 먹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가맹본부의 지원은 미미한 것으로 나



광주·전남 가맹점주 317명에게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6명 중 1명 꼴(15.5%)로 코로나19 창궐 이후 매출이 절반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등구의 한 편의점.

## ■ 광주·전남 가맹점 코로나19 대응조치

(광주 149개·전남 168개 응답, 단위:%)



## ■ 가맹본부 희망 지원사항

	광주	전남
가맹금 감면	20.6	27.3
식재료 인하지원	23.9	26.3
광고비 감면	5.9	5.1
외식업종 등 폐기 지원 확대	10.0	9.0
마스크·소독제 지원	27.9	23.1
한시적 휴업허용	3.6	6.7
기타	8.1	2.5

(자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타났다. 가맹본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응답은 광주 11.4%·전남 22.6%에 불과했다.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을 바랐다. '로열티'로 불리는 가맹금 감면을 꼽은 경우는 광주 20.6%와 전남 27.3%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식재료 등 원부자재 인하·지원'은 광주 23.9%·전남 26.3% ▲'마스크·소독제 등 지원(광주 27.9%·전남 23.1%) ▲'외식업종 폐기·반복 확대(광주 10%·전남 9.0%) ▲'가맹점 한시적·제한적 휴업 허용(광주 3.6%·전남 6.7%) ▲'광고비 등 비용 감면(광주 5.9%·

전남 5.1%) 등이 뒤를 이었다.

광주시·전남도 등 지자체에 대해서는 '긴급 운영자금 등 신속 대출'(26.9%)을 가장 많이 바랐고 ▲'마스크·소독제 등 지원(21.7%)', 지역화폐 등 지방재정 정책을 통한 매출 상황 지원(18.8%)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안전마크를 부착하거나 정기소득 등 적극적 방역을 펼쳐 고객의 불안심을 잠재워야 한다는 광주·전남 가맹점주 응답률도 17.9%에 달했다. 식재료 등 생활필수품 등을 받을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

는 요구도 13.2%를 차지했다.

정종열 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은 "외식업도 어렵지만 도소매업과 서비스업 매출 하락은 더 심각하다"며 "정부는 부가가치세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임대료·교육비·의료비 등 세액을 공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 측은 이와 함께 고용된 노동자의 4대 보험료 지원과 확진자 방문 동선상 자영업자 생계 지원 등을 요구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광주창업포럼' 개최

### 오늘 오후 4시 유튜브 공개

2020 광주창업포럼이 올해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개최된다.

광주창업포럼은 광주·전남지역의 건강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배 창업자와 전문가를 초청해 창업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기회로 만들어 창업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광주과학기술원, 광주대, 전남대, 조선포, 호남대 링크사업단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창업지원네트워크, ㈜스토리박스, 동구창업지원센터가 공동 주관하는 행사다.

우선 이달 첫 포럼은 25일 오후 4시 열린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며, 유튜브 검색창에 '광주창업포럼'을 검색하면 된다.

이날 프로그램은 2020년도 창업지원사업 설명회를 주제로 광주과학기술원의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2020 우수창업기업 집중지원사업', 2020 지역혁신모델지원사업 '허벌나게 소셜한 광주!'에 대해 설명한다.

2020 광주창업포럼은 '투자자를 위한 포럼'과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 설명회(IR)' 등을 주제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7시 동구창업지원센터가 있는 동구벤처빌딩 4층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

## 광주·전남 벤처기업 코로나19에도 약진

### 마케팅 강화 등 최선

코로나19 여파에도 광주·전남 벤처기업들이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약진'하고 있다.

24일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유제품 전문 유통사 ㈜울밀크에프앤비는 최근 카카오톡을 비롯해 GS리테일, 롯데닷컴, 배달의민족 B마트 등 국내 온·오프라인 시장 진입에 성공, 본격 판매에 들어갔다.

울밀크가 유동 중인 담양울밀크 생산 제품은 순수원유 99.5%를 활용하고 오메가3-6를 함유한 프리미엄 요거트와 구워먹는 치즈가 특징으로, GS리테일에 PB상품으로 런칭하기로 하면서 매출 상승이 기대된다.

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

역 청년 스타트업 이어드림은 구독서비스 중개 플랫폼 '구준(KKUJUN)' 앱을 론칭했다.

'구준'은 구독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랜드와 상품을 모아 정기구독에 특화, 유품품과 생필품 등 30여개사 90여개 제품을 구독할 수 있다. 올해는 전국 500여개 업체, 2000여개 제품으로 확대해 성장이 예상된다.

농업용드론 판매 국내 점유율 상위권인 ㈜천풍무인항공은 배터리를 비롯한 부품 70%를 국산화에 성공했다. 베트남 하이테크파크와 드론 전문인력 양성, 드론산업 표준화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인도네시아에 대규모 수출계약을 추진하는 등 광주·전남 벤처기업이 코로나19 여파에도 약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기용 기자 pboxer@

#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0505-362-90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